전남광주시, 학교급식 예산 100억 추경 반영

나머지 69억 내년 예산 편성…연초 전출
교육청 "수용 방침…자체사업비 조정 충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올해 광주지역 학교 무상급식 분담금 미교부액 169억원 중 100억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도 전남광주시의 계획에 수용 방침을 밝혀 우려됐던 학교급식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전망이다.

1일 전남광주시와 전남광주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올해 제2회 추경안 심의에 100억원을 반영하고 나머지 69억원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 연초에 전출하겠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전달했다.

올해 광주지역 학교 급식 예산은 총 1천576억원 규모다. 광역자치단체(특별시) 45.7%, 기초자치단체(5개 자치구) 6.2%, 교육청 48.1% 비율로 분담하고 있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지난달 분담금 693억원 가운데 169억원을 올해 편성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교육청에 통보해 학교급식 중단 우려를 키웠다.

169억원은 233개 유치원 1만7천472명, 156개 초등학교 6만8천810명, 92개 중학교 4만2천311명, 68개 고등학교 4만747명, 6개 특수학교 1천479명 등 광주지역 총 555개교 17만819명의 44일분 학교급식 예산이다.

미교부액 169억원 전액을 올해 추경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온 교육청은 전남광주시의 재정난을 감안해 100억원 연내 편성 방침을 수용키로 했다. 대신 학교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교육청 자체 사업비 조정을 통해 올해 부족 재원을 우선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내년 1월 초 교직원 인건비 지급 등 자금 압박 해소를 위해 전남광주시에 1월 중 법정전입금 등 자금을 집중 교부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은 "학교급식은 모든 학생이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이미 정착된 교육가치"라며 "급식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재원 분담 역할 강화를 위해 전남광주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개편 현장안내 비상회의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문화부시장이 1일 오후 광주청사 소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과 '광주권 시내버스 노선개편 현장안내 관련 비상회의'를 열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年 8조원 통합교육청 금고도 NH농협은행

단독 공모 참여…내년부터 4년간 운영

연간 8조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금고 운영 기관으로 NH농협은행이 선정됐다.

전남광주교육청은 1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교육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으로 NH농협은행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기존 교육금고 약정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지난 9월21일 금고 지정을 위한 일반경쟁 공고를 실시하고 10월7일 재공고했다.

그러나 2차례 공고에 NH농협은행만 참여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 방법으로 금고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

교육청은 지난달 29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NH농협은행의 신용도, 재무구조 안정성, 교육청 대출·예금 금리, 편의성, 협력 사업 등 교육금고 업무 수행 능력을 심의·평가한 결과, 적격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청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NH농협은행을 차기 교육금고로 지정하고 11월 중 금고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다.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광주청사 3조원, 전남청사 5조원 등 연간 총 8조원이다.

NH농협은행은 통합 전에도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의 금고 선정에 단독 신청해 교육비 특별 회계·일반 회계·기금 등을 운영해왔다.

앞서 NH농협은행은 지난달 연간 20조원 규모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금고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임채석 재정과장은 "NH농협은행을 교육금고로 지정해 교육비 특별회계 자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여수·고흥·무안갯벌 세계유산 합류…보전 협력 다짐

여수서 '한국의 갯벌' 확대등재 기념식
전남광주 갯벌, 전체 면적 88% 차지
철새 기착지·생물 서식지 등 가치 인정

여수·고흥·무안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전남광주지역 갯벌의 생태적 가치와 세계유산으로서의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여수세계섬박람회장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확대등재 기념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관계기관과 지자체 관계자, 지역주민,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해 확대등재의 의미를 공유하고 갯벌 보전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확대등재는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확정됐다. 2021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보성-순천 갯벌, 신안갯벌, 고창갯벌, 서천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데 이어 여수·고흥·무안·서산갯벌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기존 4개 구성요소는 6개로 확대·재편됐고, 세계유산 면적도 1천284㎢에서 287㎢ 늘어난 1천571㎢로 확대됐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시 관할 갯벌은 전체 유산 면적의 약 88%를 차지해 한국 갯벌 세계유산의 핵심 지역으로서 위상을 높였다.

기념식에는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강명수 전남광주시 산업경제부시장, 서영학 여수시장 등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인증서 전달과 확대등재 유공자 표창, 지역주민·전문가 감사패 수여, 기념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다.

갯벌은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인 동시에 탄소를 흡수·저장하는 블루카본 생태계로 기후변화 대응과 연안 환경 보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랜 세월 지역주민의 삶과 함께해 온 자연유산인 만큼 미래 세대에 가치를 온전히 전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전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남광주시는 앞으로 국가유산청과 해양수산부, 한국의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관계 시·군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역의 자연·생태적 특성을 살린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본사사령

◇백상현 편집국 지역특집부 차장(순천·광양 지역 담당)〈11월1일자〉

'국가 1호 수산식품 수출단지' 목포서 준공

가공·연구·수출 지원 복합시설

전남광주지역 수산물의 가공부터 연구개발, 유통·수출까지 지원하는 거점이 목포에 들어섰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목포 대양일반산업단지에 국가 1호 수산식품 수출단지가 준공됐다.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국내 최초로 가공·저장·유통·연구개발·수출 지원 기능을 한곳에 모은 복합시설이다. 지역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으로 개발하고 해외 판로를 넓히는 전진기지가 될 전망이다.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2020-2026년 국비 770억원, 전남광주시비 165억원, 목포시비 244억원 등 총 1천179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부지 2만8천133㎡, 연면적 4만6천612㎡ 규모로 임대형 가공공장 36실과 냉동·냉장창고 10실, 수출지원시설, 국제마른김거래소 등을 갖췄다.

특히 수출단지 국제마른김거래소는 내년 2월 시범운영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품질에 따른 합리적 가격 형성과 투명한 거래를 유도해 K-김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명진 기자

▶1면 '삼성 하나 들어왔을 뿐인데'서 계속

지방재정 역시 한층 탄탄해졌다. 2014년 1조4천122억원이었던 세입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들어선 이후 2024년 3조4천64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반도체 팹이 들어서면서 도시의 성장 경로 자체가 달라진 셈이다. 인구가 유입되고 주택과 상권이 확대됐으며 기업과 일자리가 늘면서 지역경제의 규모도 커졌다.

반면 급격한 도시 성장에 맞춰 주거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 등 생활 기반을 갖춰야 하는 새로운 과제도 함께 떠올랐다.

평택의 10년은 2030년 첫 양산을 목표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전남광주에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전남광주가 마주한 변화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규모다. 성공의 기준도 반도체 공장을 제때 짓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대규모 인력과 가족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협력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주거·교육·교통·의료·문화 등 도시 전반을 촘촘히 준비해야 한다.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전남광주의 산업 지도를 넘어 도시의 미래까지 바꿀 수 있는 만큼, 평택의 변화에서 답을 찾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인접
부동산 매물들입니다
1) 매매{매가11억}중흥6거리 광장코너 땅상업지 대지93평
2) 매매{4억5,000}중수청인접 대69평4층건물 월세330만원
3) 매매{13억5,000}중수청인접 대지193평 단층건물 평당700
법률사무실, 커피, 카페, 음식점 최적
4) 매매{2억8,800}중흥6거리 인접 대지64평 평당450만원
5)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 1층90평(면적분할가)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최적
6)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코너 2층70평(면적분할가)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228-0990, 010-4601-1390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
전기사업법 제7조 5항 5호와 동법 시행령 제4조의2(발전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년 11월 02일

1. 발전사업의 명칭	선일 10호 구례 시상 태양광발전소
2. 발전사업의 위치	전남 구례군 산동면 시상리 250 일원
3. 발전사업의 면적	9,071㎡ (약 2,744평)
4. 발전사업의 주요 내용	1) 발전용량 : 1,237.95kW 2) 설비개요 : 태양광발전소 3) 추진계획 : 27년 착공, 28년 상업운전 4) 사업운영기간 : 20년간 운영 예정
5. 발전사업 허가 신청자	㈜선승5발전(최대주주 : 오진택)
6.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	1) 의견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7일 2) 의견제출 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5, 1105호(가산동) - 전화 : 010-2443-8997 - 팩스 : 02-832-0206 - 메일 : yulara@naver.com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져(토너/드럼)
▫ 카트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 대 ▫ A/S
T.375-5880